

“학교 독서실을 만들어주세요”

전북교육청, 학생 정책제안 선정 결과 발표… 총 115건 중 10건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0 학생 정책제안 ‘정책을 부탁해!’ 제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 사업은 학생들의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희망하는 교육방향이나 학교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유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7일~18일까지 진행된 이번 제안 사업은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로 115

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우수 정책 제안 학생 10명을 선정했다. 선정 대상은 김강서 학생의 ‘선생님과 함께 하는 1대1 학습’, 김시현 학생의 ‘준비물 대여소 운영’, 김채원 학생의 ‘청소년 청원 토크 시형’, 이지연 학생의 ‘학교 독서실을 만들어주세요’, 이지원 학생의 ‘전북 학생 소식 발간’, 임상훈 학생의 ‘날빛교육정책’, 정민영 학생의 ‘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상담 밴드 활성화’, 조은열 학생의 ‘행동으로 배우는 환경교육’, 조정빈 학생의 ‘야 학교 너두 용돈기입장 쓸 수 있어’, 지세인 학생의 ‘계단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설치’ 등이다. 도교육청은 28일 1층 장검다라에서 우수 정책을 제안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 및 차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학생들과 제안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반영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많이 냈다”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제안 접수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학생 5명의 학급에 간식을 지급하는 ‘친구들이, 간식 먹자 깜짝 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수)은 지난 2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주향의집 및 하늘빛그룹홈을 찾아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순창교육지원청, 사회복지시설에 격려물품 전달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수)은 지난 2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주향의집 및 하늘빛그룹홈을 찾아 격려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순창교육지원청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인 순창골사랑나눔도우미는 올해로 15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명절마다 전 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일정액을 모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하

고 있다. 올해도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주향의집 및 하늘빛그룹홈)을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택수 교육장은 “이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시설 관계자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며 “공직자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나눔을 통해 더욱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장로회, 건축기금 전달

전주대학교는 지난 21일 전주대장로회에서 ‘숲속 초막 셋’ 건축기금으로 1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학본관에서 진행된 건축기금 전달 실에는 이호인 총장과 최용욱 의과학대학장(대학교회 장로), 유기석 학술정보운영실장(전주 기린봉교회 장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용욱 의과학대학장은 “숲속 초막 셋 건립에 동참해 기독교 대학의 위상과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기부 의사를 전했다. 이호인 총장은 “장로회의 기도와 헌신을 바탕으로 학교의 영성이 회복되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꿈을 이뤘다고 있다”며, “장로회의 섬김이 재학생과 구성원에게 희망과 위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로회는 기독교 대학만의 특별한 모임이다. 2006년 설립된 전주대 재직 장로들의 모임으로 학교 발전과 학교 내 영성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1일 전주대장로회에서 ‘숲속 초막 셋’ 건축기금으로 150만원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유기석 실장, 최용욱 학장, 이호인 총장, 김갑룡 교육부총장, 류두현 대외부총장.

전북대-전주대, 23일부터 수시 원서접수

전북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3일부터 28일까지 2021 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받다고 밝혔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2021 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모두 2,753명을 선발한다. 2,730명을 선발했던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이 다소 늘었다.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883명, 교과전형에서 1,900명을 모집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정성종합서류평가(100%)를 통해 4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70%) 면접(30%)을 반영해 뽑는다.

학생부교과전형 일반학생, 지역인재전형은 학생부 100%를 적용하며 특기자전형은 학생부(40%), 입상실적(40%) 면접(20%) 등의 반영점수를 통해 일괄합산 방식의 선발모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간호학과, 수의예과, 의예과, 치의예과 제외)이 없지만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원서접수는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자기소개서 역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후 저장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문경연 교수(국제인문사회학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북한 개발 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인 문 교수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 신임 민간위원에 위촉했다. 이에 따라 문 교수는 앞으로 1년 동안 북한과의 교류 협력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추협은 남북 교류협력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민간위원 정수는 5명이다. 문 교수는 지난 15년간 대북 지원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활동 등을 활발히 해 오는 등 남북 교류 협력에 책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문 교수는 “최근 남북 교류협력력이

통일부, 교추협 민간위원
전북대 문경연 교수 위촉

남북 교류 협력 책임자로 평가... 임기는 1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과감한 남북교류협력력이 재개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교류협력력을 이룰 것이며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에 민간 위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문 교수는 “북 교류협력력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전라북도와의 의견을 나누고 정부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 및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지리산 청정지역!

남원 농·특산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NAMWON

SPECIALITY